



“애벌레가 된 자신을 상상해 보라”며 선생님이 영어단어 카드를 칠판에 붙였다.

봄은사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가보니...

9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봄은사주지 원혜, 교육국장 선임 스님이 보우당에 올랐다. 시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질러놓은’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기 위해서다. 봄은사 보우당에서는 여느 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법당에 누워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댄다. 법당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춤을 추기 까지 한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
은 법당을 누비던 모습은 간데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낭랑한 목소리로 포박포박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
“I’m a caterpillar. Munch Crunch. I’m getting bigger.”
애벌레가 된 아이들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애벌레의 동작이라며 법당을 기어 다니는 용준(거원초교 5년아, 하늘을 보고 드러누운 근준(정당초

아이들을 두 조로 나누어 줄넘기 실력을 겨루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보우당 벽화에서 힌트를 얻어 지은 이름인 청룡팀과, 근준이가 조장이 된 포켓몬스터팀은 팀원의 힘을 모으기 위해 작전을 짜면서 금새 친해졌다.
실력 견주기에 앞서 연습시간, 조장 원일(봉은초교 6년아)의 구령에 맞춘 청룡팀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전에선 포켓몬스터팀이 이겼다. 팀원들의 실수를 비난하던 포켓몬스터팀이 서로를 격려하며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마음이 어느새 열려 있었다.
봄은사의 ‘어린이 영어 뮤지컬’은 전국 사찰을 통틀어 최초로 시도된, 뮤지컬을 통한 영어배우기 프로그램이다. 처음인 만큼 힘든 일도 많았다. ‘도심사찰로서 어린이 영어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시도는 했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40명이 뮤지컬로 영어배우는 집체 프로그램

6개월간 영어·춤·노래·글쓰기·연기 지도

교 6년아, 화분에서 곱게 자란 나뭇잎을 꺾어 먹는 흉내를 내는 경원(아주초교 5년아)...
아이들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자신이 진짜 애벌레 같다고 으스스했다.
엄숙한 법당이 상상놀이터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하는 이 아이들은 다름 아닌 영어와 표현력,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다. 그것도 뮤지컬로 영어를 습득하는 일종의 집체 프로그램이다.
발성과 춤, 연기까지 연습해야 하는 뮤지컬은 법당을 아이들의 상상놀이터로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의 발칙한(?) 행동을 뒤에서 지켜보는 선임 스님의 표정에는 흐뭇함이 배어있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인 탓에 선택의 폭이 좁았다. 사찰에서 지도할만한 영어와 뮤지컬에 능통한 인재 찾기가 힘들었던 것. 게다가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또한 아니 할만 못한 일이 될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에 가까웠다. 프로그램 운영업체인 ‘기획잡지니 교학’에서 불자인 노영화씨를 만났고, 30명 정원을 훨씬 초과해 50여 아이들이 신청서를 냈다. 불자들의 호응에 한껏 고무된 봄은사는 레벨 테스트를 거쳐 40명을 선발하고 9월 10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영화씨와 2명의 뮤지컬 배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까지 총 4명의 선생님이 6개월 동안 영어, 춤, 노래, 글쓰기, 연기를 지도한다.



줄넘기 실력을 겨루며 법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닌다.



청룡팀이 구령을 외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내가 진짜 애벌레 같죠?” 서울 봄은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영어뮤지컬 ‘참나찾기’에 참가한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에 앞서 상상력 계발을 위한 몸풀기 동작을 하고 있다.

봄은사의 ‘어린이 영어 뮤지컬’은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많아지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법회에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와 함께 사찰에 오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의 욕구를 미약하나마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봄은사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늘었어
선임 스님은 “도심사찰은 아이 때문에 부모들의 신생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충을 풀어줘야 한다”며 어린이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외에도 놀이방·도서관 운영을 한다며 효과를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인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교육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봄은사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 외에도 창의력과 표현력, 협동심을 길러주는 본래 취지를 한껏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봄은사는 6개월 과정이 끝나는 날 아이들의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02)3218-4821-8
글=박봉영 기자·사진=백재원 기자

사찰 영어 프로그램 ‘인기’

서울 봄은사 외에도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에 열여 신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찰이 몇 곳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무료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수준의 반으로 편성되며 수업은 영어회화 위주로 진행된다.
대전 지역에서 불교영어 ‘봄’을 일으킨 대전

자광사 국제선원 불교영어학교도 지역사회에서 유명하다. 영어권 원어민 강사가 이끄는 토론식 수업 80분 동안 우리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불교영어법회를 열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김포 용화사는 현재 사찰이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 잠시 법회를 쉬고 있다. 내년부터 다시 영어법회를 열 계획이다. 대신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호주로 떠나는 ‘제3회 불교 어린이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은비 기자

사찰 영어교육 프로그램

장소	내용	시간	전화번호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어린이영어반	매주 일 오전 8~10시	(02)900-4326
서울 금강사	방과후공부방 영어교실	월~금 오후 5시	(02)395-0042
김포 용화사	제3회 불교영어어린이연수	12월말~1월초	(031)984-3234
대전 자광사	불교영어학교	1·2·3주 일 오전 10시, 오후 1시	(042)822-9220
포항 죽림사	영어회화 특별교실	매주 토 오후 2시	(053)247-4688
부산 흥법사	놀이 영어연극	2,4주 토 오전 10시30분	(051)508-0345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뢰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정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식약청 의뢰유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뢰용 전자발생기 : A83060호
전자음품 안전 인증 : HH07236-5004A호

- 전자파 정해심함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상상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약돌사입니다.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물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가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 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산학교수 발표기사) 발췌

식약청 의뢰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대장증상, 속취, 암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율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에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존역할 밖에는 안되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숙이 들어간다.(체온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상온(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해치게 된다.	상온(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용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용이온을 낸다.	1cc당 1,000-1,500개의 용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